'유니크한 사그란티노 베이스 와인'

다렌버그 세노실리카포빅 캣 사그란티노 쌩소

The Cenosilicaphobic Cat

지역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포도품종	사그란티노 93% 쌩소 7%		
알코올	1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3℃		
테이스팅 노트	고품질의 레드 와인을 생산해내는 사그란티노 베이스에 쌩쏘를 블렌딩한 와인으로 붉은 과실과 카시스, 초콜렛, 말린 허브의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사그란티노가 만들어내는 탄닌감, 입 안을 가득채우는 드라이한 느낌과 산도, 미네랄리티에 쌩쏘의 플로럴한 느낌이 조화롭다. 향후 최대 15년의 긴 숙성 잠재력을 가진 와인으로 입 안에서 느껴지는 텍스쳐는 예상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온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흰 육류/ 익힌 생선/ 익힌 채소/ 치즈/ 훈제, 염장 음식/ 피자, 파스타		

당도	DRY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FULL
	1	2	3	4	5	

제품설명

세노실리카포빅 캣은 사그란티노와 쌩쏘, 두 개의 흥미로운 포도 품종을 조화롭게 풀어낸 와인이다.
세노실리카포빅(Cenocilicaphobia)은 '빈 잔에 대한 두려움'이란 뜻으로 다렌버그의 와인메이커 체스터씨가 어린 시절 기르던 고양이의 이야기를 담은 재미있는 와인이다. 부즈(Booz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고양이는 레드 와인을 조금씩 맛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고양이의 건강을 걱정한 가족들이 이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세노실리카포빅 캣은 강제로 금주를 당한 고양이 부즈의 분노를 재치있게 풀어낸 와인으로 라벨에 그려진 글라스모양과도 같은 고양이 얼굴이 인상적이다. 최대 24개월에 이르는 오크 숙성을 통해 부드러운 풍미로 마무리되지만 적당한 산도감이 매력적인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7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2015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2013빈티지 와인 앤 스피릿 Wine & Spirits 92점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